

# 공유재산의 사회적가치 높인다

### 전북도, 미취업청년 수의계약·임대료 지원 등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

전북도는 미취업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활용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감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류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

대했다.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액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액으

로 변경 개선했다.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또한,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광송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련 조례를 내년 6월 이전에 개정해 도내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유도탄 SM-2 수십여발 구매 결정

### 軍 '천무' 장착 무유도탄 우선협상대상 한화 선정

군 당국이 이지스함에 탑재할 함대함유도탄으로 SM-2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함대공유도탄 5차 사업 구매계획안과 230mm급 무유도탄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수 결정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함대공유도탄 5차 사업은 군이 한 국형 이지스함(KDX-III·Batch-II) 3척을 추가 건조기로 하면서 여기에 탑재하기 위한 함대공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추위에서는 전력화 시기와 탑재대상함정, 성능 등을 고려해 SM-2를 미적으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구매하는 SM-2는 3400억원 규모로, 수십여발을 구매해 오는 2023년 이후에 도입되는 이지스함에 탑재할 예정이다.

KDX-III·Batch-II SM-2와 함께 적탄도미사일에 대비한 KAMDX(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연계해

요격고도 500km 안팎의 SM-3급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참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SM-3급 해상 탄도탄 요격미사일 소요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그 동안 SM-3 도입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요격 성능 등을 감안하면 SM-3에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군이 전력화한 이지스함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췄지만 이를 상층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는 갖췄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방추위에서는 230mm급 '천무'에 탑재해 운용 가능한 무유도탄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한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30mm급 다연장 천무는 다수의 로켓탄을 한꺼번에 발사해 광범위한 지역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 현재 주 탄약은 230mm급 무기로 단일고폭탄과 이중목적고폭탄이 개발돼 사용됐다. /뉴시스



청와대와 함께 크리스마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가 지난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연말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 '청와대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다양한 기부·나눔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사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부안)	공음면 동촌마을 110,000	
하서면 노계마을 295,000	공음면 신촌마을 95,000	
하서면 청호마을 225,000	공음면 회룡마을 180,000	
하서면 석상마을 56,000	공음면 하건마을 110,000	
하서면 금삼마을 175,000	공음면 선산마을 240,000	
(고창)		(12월 10일자)

## 문 대통령 "포용적 무역강국 거듭나야"

### 무역의 날 기념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축하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 기업의 노사위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수출비우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된다.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수출지원정책 대통령 표창

### 전북도, 올해 수출증가율 2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1위

전북도가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 수출지원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수출지원 정책에서 대한민국 최고임을 입증했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주최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 수출지원 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북도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해 반영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을 추진해 2018년 수출증가율이 2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한 성과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2011년 이후 급감한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포스트 신시장개척 지원, 무역사설단 파견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 중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아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을 폭넓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로의 수출이 41% 증가한 4억4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아시아(36억1700만달러, 34% ↑), 유럽(9억4600만달러, 32% ↑), 중동(5억2300만달러 28% ↑), 북미(873만달러, 20% ↑) 등으로의 수출도 고르게 증가했다.

또 2015년말부터 시작된 중견기업들의 분사 소재지로의 수출실적 이탈을 바로잡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도내 제조공장으로 환원하기도 했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열악한 산업 여건속에서도 경제지표의 하나인 수출실적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전북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기술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부안군 공고 제2018-1223호 부안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517번지 일원에 부안군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발생자를 줄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의견 청취) 및 제30조(군관리계획의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안)**

- 사업개요
  - 가. 명칭: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나. 위치: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517번지 일원
  - 다. 면적: 21,715㎡
  - 라. 시행자 주소: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마. 시행자 성명: 부안군수
  -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년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합계	21,715.0	100.0	224	224	
주차용지	총계	14,628.3	67.4	224	대형1061㎡, 소형9667㎡
	주차장	7,219.1	33.6	-	
시설용지	총계	7,337.1	33.8	-	-
	관리동	301.8	1.4	224	224
녹지용지	총계	301.8	1.4	224	224
	관리동	6,784.9	31.2	-	-
특수목적지	총계	695.7	3.2	-	-
	특이 및 사면	6,088.2	28.0	-	-
- 건축계획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도입시설
합계	224	224	-
관리동	224	224	1층: 관리실, 화장실 및 샤워실, 휴게실, 회의실, 사무실
- 시설운영계획
  - 총괄 시설 운영
    - 운영시기: 2021년 1월부터
    - 설치·운영권자: 부안군수
    - 시설운영계획: 부안군수 직영 또는 위탁운영
  - 시설별 세부운영 계획
    - 지역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및 관련단체의 영업공간 제공
    - 화물운송자동차 운전자의 휴게실 및 커피 등 이용
    - 임대료·이용료 등의 부과: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가칭)
- 부안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 가.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	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517번지 일원	-	21,715	21,715	금회	

나. 군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0	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설 - 면적: 21,715㎡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설	· 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차고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와 발생주차를 줄여 쾌적하고 안전한 부안교통 및 정주환경 조성

-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안) 및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서류: 실음 생략
- 관계도서: 실음 생략
-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지방일간지 및 군 홈페이지 게시관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부안군 미래창조경제과 ☎ 063-580-4603
- 의견제출: 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2018년 12월 10일  
부안군수